

자료해석영역

1. 다음 <표>는 고용동향자료의 일부이다. 2005년 10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전직(前職)유무별 실업자 (단위 : 천명, %)

구 분	2004. 10 (천명)	2005. 9 (천명)	2005. 10 (천명)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 감 (천명)	증가율 (%)	증 감 (천명)	증가율 (%)
<전 체>	809	870	870	61	7.5	0	0.0
◦ 신규실업자	28	23	30	2	7.1	7	30.4
◦ 전직실업자	781	847	840	59	7.6	-7	-0.8
└ 1년 이상	126	183	190	64	50.8	7	3.8
└ 1년 미만	655	664	650	-5	-0.8	-14	-2.1
<남 성>	522	539	531	9	1.7	-8	-1.5
◦ 신규실업자	20	13	13	-7	-35.0	0	0.0
◦ 전직실업자	502	526	518	16	3.2	-8	-1.5
└ 1년 이상	82	97	104	22	26.8	7	7.2
└ 1년 미만	420	429	414	-6	-1.4	-15	-3.5
<여 성>	287	331	339	52	18.1	8	2.4
◦ 신규실업자	8	10	17	9	112.5	7	70.0
◦ 전직실업자	279	321	322	43	15.4	1	0.3
└ 1년 이상	44	86	86	42	95.5	0	0.0
└ 1년 미만	235	235	236	1	0.4	1	0.4

<보 기>

- ㄱ. 전체 실업자 중, 신규(新規)실업자는 30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천명(7.1%) 증가하였으며, 전직(前職)실업자는 84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천명(7.6%) 증가하였다.
- ㄴ. 전년동월대비 여성 실업자의 증가율이 남성 실업자의 증가율보다 높지 않다.
- ㄷ. 성별로 보면 전직실업자 중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 ㄹ.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은 여성 신규실업자(112.5%)이고 가장 작은 것은 남성 신규실업자(-35%)이며, 전체 신규실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30.4%이다.
- ㅁ. 전체 실업자 중, 이직한 지 1년 이상 된 전직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4천명(50.8%)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7천명(3.8%) 증가하였다.

- ① ㄱ, ㄷ, ㄹ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ㅁ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ㄴ, ㄹ, ㅁ

2. 다음 <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자동차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연도별 주요 도시의 자동차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단위 : 건, 명)

구 분	시점	발생건수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등록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
A시	2003	40,279	504	5.0	1.6
	2004	38,714	468	4.7	1.5
	2005	38,528	481	4.8	2.0
B시	2003	12,944	301	8.3	2.8
	2004	11,615	265	7.2	2.5
	2005	11,810	256	7.1	2.0
C시	2003	12,807	226	8.9	2.4
	2004	11,275	224	8.8	2.4
	2005	12,035	213	8.4	2.0
D시	2003	13,304	203	7.9	2.5
	2004	11,940	183	6.9	2.2
	2005	11,535	196	7.6	2.0
E시	2003	8,756	158	11.1	3.5
	2004	8,223	137	9.5	3.0
	2005	7,775	100	7.0	2.0
F시	2003	6,702	104	7.2	2.0
	2004	5,694	98	6.6	1.9
	2005	5,342	104	7.1	2.0
G시	2003	4,909	119	11.1	3.0
	2004	4,510	95	8.8	2.3
	2005	4,312	107	9.8	3.0

<보 기>

- ㄱ.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자동차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2만 건 이하이고, 사망자수가 매년 300명 이하이면서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도시는 C시밖에 없다.
- ㄴ. F시의 자동차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그렇지 않다.
- ㄷ. 2005년 E시와 G시의 인구 10만명당 등록차량수를 비교하면 G시가 더 크다.
- ㄹ. 2005년도 D시의 경우, 자동차사고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5%미만 감소하였고 등록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5%이상 감소하였다.
- ㅁ. 모든 도시에서 자동차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 ① ㄱ, ㄴ
- ② ㄷ, ㅁ
- ③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ㄹ, ㅁ

3. 다음 <표>는 중앙정부가 징수한 국세의 세목별 비중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표> 중앙정부가 징수한 국세의 세목별 비중의 추이
(단위 : %)

구 분	1980	1990	2000	2004	2006
내국세	63.7	67.4	74.4	78.7	79.1
소득세	12.5	17.6	18.8	19.9	20.5
법인세	9.2	12.0	19.2	21.0	19.9
상속세	0.2	1.1	1.1	1.5	1.6
자산재평가세	0.4	0.4	0.6	0.0	-
부가가치세	27.8	25.9	25.0	29.3	30.5
특별소비세	11.0	7.1	3.2	3.9	3.3
전화세	0.9	1.0	1.6	0.0	-
증권거래세	0.0	0.8	2.9	1.1	1.3
인지세	0.6	0.7	0.4	0.4	0.4
기타	1.1	0.8	1.6	1.6	1.6
주세	5.6	3.8	2.1	2.2	1.9
교통세	-	-	9.0	8.5	8.7
관세	14.5	10.3	6.2	5.8	4.8
방위세	16.2	16.5	0.0	0.0	-
교육세	-	2.0	6.2	3.0	2.7
농어촌특별세	-	-	2.1	1.8	2.0
종합부동산세	-	-	-	-	0.8
계 (국세총액 : 억원)	100.0 (52,977)	100.0 (268,474)	100.0 (929,347)	100.0 (1,177,957)	100.0 (1,353,336)

- ① 1980년에 비해 2006년에는 주세액과 관세액이 각각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② 이 기간 동안 항상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의 합은 부가가치세액보다 컸다.
- ③ 1980년에 비해 2006년 중앙정부가 징수한 국세총액은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 ④ 2006년 상속세액은 1980년 부가가치세액보다 작다.
- ⑤ 증권거래세액은 2006년도에 가장 크다.

4. 다음 <표>는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의 국가순위와 해당 척도를 구성하는 지표 및 1인당 GDP에 대한 4개 국가의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국가별 여성권한척도

구 분	여성권한 척도 국가순위	여성권한척도				1인당 GDP 국가순위
		국회의원 여성비율 (%)	입법 및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	남성대비 여성 추적소득비	
한 국	59	13.0	6	39	0.48	34
일 본	43	9.3	10	46	0.46	13
미 국	10	14.8	46	55	0.62	4
필리핀	46	15.4	58	62	0.59	103

- <보 기>

ㄱ. 한국은 4개 국가 중 1인당 GDP 국가순위와 여성권한척도 국가순위의 차이가 가장 큰 국가이다.
 ㄴ. 4개 국가를 보면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여성권한척도 국가순위는 낮다.
 ㄷ. 한국여성과 미국여성의 소득 격차가 일본여성과 필리핀여성의 소득격차보다 크다.
 ㄹ. 필리핀은 4개 국가 중 1인당 GDP 국가순위보다 여성권한척도 국가순위가 높은 유일한 국가이다.
 ㅁ. 한국은 4개 국가 중 국회의원 여성비율, 입법 및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이 모두 가장 낮은 국가이다.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ㄱ, ㄴ
 ④ ㄷ, ㄹ
 ⑤ ㄱ, ㄴ, ㄷ, ㅁ

5. 다음 <표>는 한국기업이 외국에 직접투자한 현지법인의 매출구조를 나타낸 통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의 매출구조
(단위 : 백만달러, %)

투자대상국		현지판매	대 한국수출	제3국수출	총매출액
중 국	금액	14,443	4,240	10,579	29,262
	비중	49.3	()	()	100.0
미 국	금액	41,797	2,111	1,920	45,828
	비중	()	()	()	100.0
기 타 (중국미국 제외)	금액	61,617	20,984	29,354	111,955
	비중	55.0	18.8	26.2	100.0
전 체	금액	117,857	27,335	41,853	187,045
	비중	63.0	()	()	100.0

- <보 기>

ㄱ. 한국기업이 중국에 직접투자한 현지법인의 총매출액 중 제3국 수출액의 비중은 전체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의 제3국 수출액 비중보다 높다.
 ㄴ. 한국기업이 중국에 직접투자한 현지법인의 총매출액은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기타지역에 직접투자한 현지법인 총매출액의 25% 이상이다.
 ㄷ. 한국기업이 미국에 직접투자한 현지 법인의 총매출액 중 현지판매 비중은 90% 이상이다.
 ㄹ. 한국기업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액보다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 정부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 <표>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사회복지제도를 고려하고 있을 때, 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사회복지제도의 유형

제도 A			제도 B		
기본급여액 80만원 급여감소율 100% 급여자격소득 80만원			기본급여액 80만원 급여감소율 50% 급여자격소득 160만원		
근로소득	급여액	총소득	근로소득	급여액	총소득
a	0원	80만원	e	0원	80만원
b	10만원	70만원	f	40만원	60만원
c	40만원	(가)	g	80만원	(나)
d	80만원	()	h	160만원	()

- 주1) 기본급여액은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지급되는 급여액을 의미함.
 주2) 급여감소율은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는 급여액의 비율을 의미함.
 주3) 급여자격소득이란 급여액이 0이 되는 최저근로소득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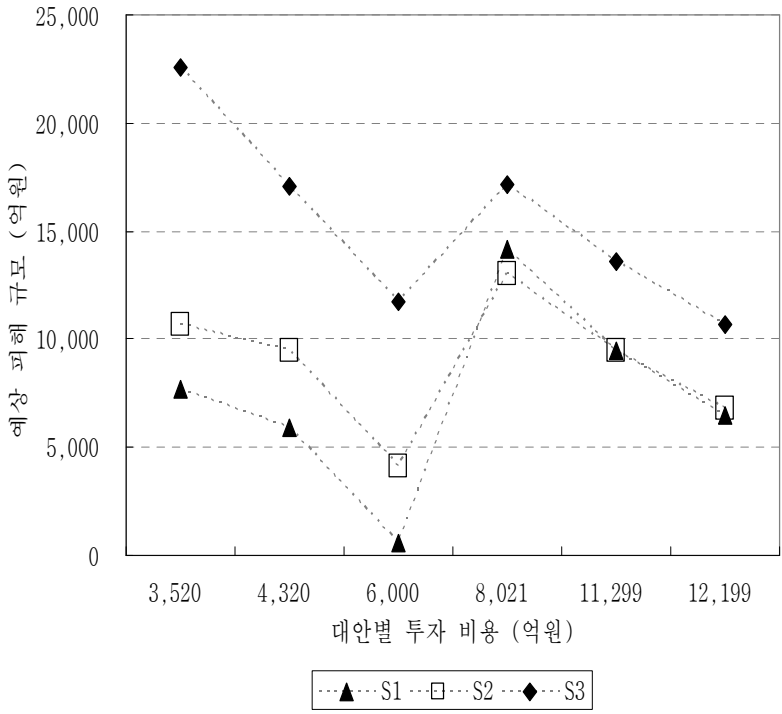
<보 기>

- ㄱ. (가)에 적합한 급여액은 40만원이다.
- ㄴ. 제도 A에서 제도 B로 바꿀 경우 기존 제도 수혜자들의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다.
- ㄷ. (나)에 적합한 총소득은 130만원이다.
- ㄹ. 제도 B에서 급여감소율을 25%로 줄이면 급여자격소득은 300만원으로 증가한다.
- ㅁ. 제도 A에서는 개인의 근로소득이 8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총소득의 크기는 80만원이다.

- ① ㄱ, ㄴ, ㄹ, ㅁ
- ② ㄱ, ㄴ, ㅁ
- ③ ㄱ, ㄹ, ㅁ
- ④ ㄱ, ㄷ
- ⑤ ㄴ, ㄹ, ㅁ

7. 정부는 산간 지역에 새로운 통신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6종류의 통신망 대안(후보)이 거론되고 있으며, 각 대안의 투자 비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투자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대안부터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 e, f 라고 한다. 각 대안의 산불, 홍수와 같은 각종 재난에 취약한 정도를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은 S1, S2, S3의 3가지 종류의 재난 시나리오에 대해, 모의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통신망 대안별 예상피해규모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아래에서 비용대비 효과는 ‘1 - (피해 규모 ÷ 투자 비용)’으로 정의된다.

<그림> 통신망 대안별 예상피해규모



- ① 대안 c가 모든 재난 시나리오(S1, S2, S3)에 대해 가장 덜 취약하다.
- ② 모든 대안에서 재난 시나리오 S2의 피해 규모가 S1 보다 크다.
- ③ 투자 비용이 높은 대안일수록 재난에 대해 강한 모습을 보인다.
- ④ 재난 시나리오 S1에 국한할 때, 대안 a, b, c의 비용대비 효과가 거의 동일하다.
- ⑤ 대안 d, e, f가 대안 a, b, c에 비하여 재난 시나리오(S1, S2, S3)의 변화에 대한 예상 피해 규모의 변동폭이 작다.

8. 다음 <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1차에너지 소비량 및 원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연도별 1차에너지 소비량 및 원별 구성비

(단위: 천TOE, %)

연도	총소비량 (천TOE)	원별 구성비(%)					
		석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신탄,기타
2000	192,887	22.3	52.0	9.8	0.7	14.1	1.1
2001	198,409	23.0	50.7	10.5	0.5	14.1	1.2
2002	208,636	23.5	49.1	11.1	0.6	14.3	1.4
2003	215,067	23.8	47.6	11.2	0.8	15.1	1.5
2004	220,238	24.1	45.7	12.9	0.7	14.8	1.8
2005	228,622	24.0	44.4	13.3	0.6	16.1	1.6

- ① 2001년 이후 1차에너지의 전년대비 총소비량 증가율은 2002년에 가장 높다.
- ② 2000년 이후 항상 LNG소비량과 원자력소비량의 합은 석탄소비량보다 크다.
- ③ 2003년 이후 석유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④ 2000년 이후 전체 1차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LNG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석유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⑤ 2003년도에 원자력소비량의 전년대비 증가분은 2003년도 수력소비량의 전년대비 증가분의 2배 이상이다.

9. 다음 <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물과 음식을 통해서 전파된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 통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 통계

(단위: 명)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콜레라	68	2	10	0	3	0	162	4	1	10	16
장티푸스	370	475	265	380	308	234	401	221	199	174	190
파라티푸스	30	9	9	12	11	7	36	413	88	45	31
세균성이질	23	9	11	906	1,781	2,462	928	767	1,117	487	317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	-	-	-	1	11	8	52	118	43
합 계	491	495	295	1,298	2,103	2,704	1,538	1,413	1,457	834	597

주) - : 조사하지 않았음.

<보 기>

- ㄱ.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던 해가 있다.
- ㄴ. 5개 질병 중 파라티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간 (2003~2005년) 감소하고 있다.
- ㄷ. 장티푸스는 1996년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다.
- ㄹ. 해마다 100명이상 환자가 발생한 질병은 장티푸스이다.
- ㅁ. 2005년에 전년대비 감소율이 가장 큰 질병은 세균성 이질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10. 다음 <표>와 <그림>은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세 납부액 현황과 법인세징수액 및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연도별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법인세 과세표준 규모별 납부액 현황

(단위: 개, 억원)

과세표준 규모	세율	법인 수	총 과세표준액	총세액
결손	-	102,387 (33.8)	-	43 (0.0)
1천만원 이하	15%	70,913 (23.4)	1,581 (0.2)	286 (0.1)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85,779 (28.2)	34,798 (3.4)	4,813 (2.2)
소 계		156,692 (51.6)	36,379 (3.6)	5,099 (2.3)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27%	37,927 (12.5)	100,061 (9.8)	17,959 (8.0)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5,621 (1.9)	155,380 (15.3)	33,232 (14.9)
100억원 초과~500억원이하		750 (0.2)	132,383 (13.0)	31,257 (14.0)
500억원 초과		85 (0.0)	592,733 (58.3)	135,871 (60.8)
소 계		44,383 (14.6)	980,557 (96.4)	218,319 (97.7)
합 계		303,462 (100.0)	1,016,936 (100.0)	223,461 (100.0)

주) ()는 합계 대비 점유비중(%)

<그림> 법인세 징수액 및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비교(1976~2003년)

주) 증가율은 전년대비임.

<보 기>

- ㄱ. 법정세율 1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법인수는 15만 6,692개로 전체 법인의 51.6%를 차지하고 있다.
- ㄴ. 1억원 초과와 과세표준으로 27%의 누진단계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은 4만 4,383개로 전체 법인의 14.6%를 점유하며, 동 법인이 부담하는 총세액은 21조 8,319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액의 96.4%를 납부하고 있고, 법인당 평균세액은 4억 9,190만원으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법인이 납부하는 평균세액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ㄷ. 우리나라 전체 법인 중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6,456개의 법인이 전체 세액의 89.7%를 부담하였다.
- ㄹ. 법인세 징수액증가율과 GDP 증가율을 비교하면 대체로 GDP 증가율에 비해 법인세 징수액증가율의 등락폭이 더 크다.
- ㅁ. GDP 증가율이 높아지면 법인세 징수액증가율이 항상 큰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GDP 증가율이 둔화되면 법인세 징수액증가율은 감소한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ㅁ

11.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는 고열과 두통을 수반하며, 뇌의 중추신경계를 교란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이다. 다음 <그림>은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

8월에 홍수가 나면, 모기유충이 증식하는 웅덩이가 많이 생긴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에서 피를 빼는 과정에서 다른 모기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보 기>

- ㄱ. 겨울이 따뜻하면 다음해 봄, 여름에 모기가 번창한다.
- ㄴ. 봄/여름에 내리는 비는 모기의 천적인 곤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ㄷ.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 ㄹ. 봄/여름에 비가 적어 새들이 웅덩이에 모여들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직접 새들에게 감염된다.
- ㅁ. 8월에 큰 비가 내리면, 모기의 천적인 곤충도 함께 죽는다.
- ㅂ.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기유충을 잡아먹는 물고기를 웅덩이에 방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ㄴ, ㄹ, ㅂ
 ⑤ ㄹ, ㅁ, 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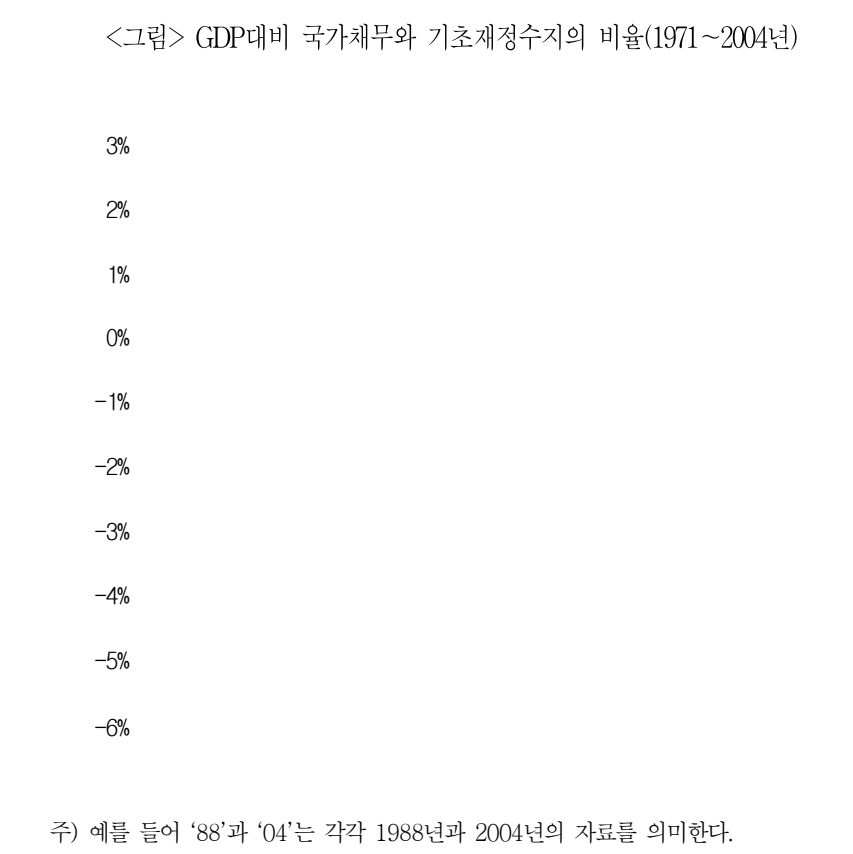
12. 정부나 기업의 투자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투자 대안의 기대수익률(expected profit rate)과 수익률의 분포를 나타내는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표준편차는 투자 대안의 위험 수준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대수익률은 높을수록, 표준편차는 낮을수록 바람직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된다. 아래 7개의 투자 대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기서는 기대수익률과 위험수준에 대한 선호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표> 투자 대안별 기대수익률 및 표준편차

투자 대안	기대수익률(%)	표준편차(%)
A	10	1.0
B	15	1.0
C	10	0.9
D	15	1.5
E	8	1.2
F	20	2.5
G	17	1.8

- ① 투자 대안 A와 C, B와 D는 동일한 기대수익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다.
- ② 투자 대안 B, C, F, G 중에서 어느 것이 낫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③ 투자 대안 F의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F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 ④ 투자 대안 E는 D와 G에 비해 우월하다.
- ⑤ 7가지 대안의 기대수익률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투자 비율을 구성하여 모든 대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다음 <그림>은 1971년부터 2004년까지의 우리나라 연도별 국가채무와 기초재정수지의 시계열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1971년부터 2004년 사이 우리나라 국가채무액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1997년이었으며,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2년이다.

ㄴ. 1970년대 우리나라의 기초재정수지는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다.

ㄷ.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83년부터 1991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ㄹ. 1998년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기초재정수지 적자의 GDP대비 비율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ㄷ, ㄹ

14. 다음 <정보>는 1인당 GDP와 적정수준의 공공도서관 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표>는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GDP, 인구 백만명당 공공도서관 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 보>

- $Y = 3.2 + 0.23X$

□ Y : 적정수준의 공공도서관 수(인구 백만명당)

□ X : 1인당 GDP (단위: 100\$)

<표> 우리나라의 연도별 인구, 1인당 GDP, 인구 백만명당 공공도서관 수

연도	인구(백만명)	1인당GDP(\$)	인구 백만명당 공공도서관 수
1974	34.5	540	3.0
1991	43.5	6,500	9.1
2006	49.0	16,000	12.3

<보 기>

ㄱ. 1991년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적정수준의 공공도서관 수에 못 미치고 있다.

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적정수준의 공공도서관 수와 비교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

ㄷ. 만약 위의 식이 ' $Y = 2 + 0.15X$ '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1974년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적정수준의 공공도서관 수를 초과한다.

ㄹ. 2006년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1974년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5. 다음 <그림 1>~<그림 4>는 우리나라의 농가 호당 평균 농지임대면적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1> 경영규모별 농가 호당 평균 농지임대면적의 변화

<그림 2> 전업농가와 겸업농가의 호당 평균 농지임대면적의 변화

- 주1) 전업농가 :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 주2) 1종 겸업농가: 겸업농가(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중 당해 연도의 농업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입(농업조수입)이 농업 이외의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농외소득)보다 많은 농가
- 주3) 2종 겸업농가: 겸업농가(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중 당해 연도의 농업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입(농업조수입)이 농업 이외의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농외소득)보다 적은 농가

<그림 3> 경영주 연령별 및 전겸업별 농가 호당 평균 농지임대면적 비교

<그림 4> 지대별 및 전겸업별 농가 호당 평균 농지임대면적

<보 기>

- ㄱ. 경영규모가 1ha 미만인 소규모 농가 그룹에 비해 3ha 이상 대규모 농가 그룹의 호당 평균 농지임대면적이 큰 편이며,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대되고 있다.
- ㄴ. 호당 평균 농지임대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1종겸업농가에 비해 전업농가와 2종겸업농가의 농지임대가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 ㄷ. 전업농가의 경우 40대 및 50대 경영주 농가에 비해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 고령인 농가의 호당 평균 농지임대면적이 크다.
- ㄹ. 호당 평균 농지임대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도시근교 지역에서는 2종겸업농가의 농지임대가 전업농가나 1종겸업농가에 비해 활발한 편이다.
- ㅁ. 전업농가와 1종 및 2종겸업농가의 호당 평균 농지임대면적의 상대적인 크기는 모든 경영주 연령별 및 지대별 농가 그룹에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 ③ ㄷ, ㄹ, ㅁ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ㅁ

16. 다음의 <표 1>~<표 3>은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2005년 11월 기준)의 일부분이다. 이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주거 보유형태별 거주기간
(단위 : 천가구, %)

구 분	계	1년미만	1~2	2~3	3~5	5~10	10~15	15~20	20~25	25년이상
계	15,889 (100.0)	2,736 (17.2)	2,035 (12.8)	1,784 (11.2)	2,167 (13.6)	3,029 (19.1)	1,556 (9.8)	559 (3.5)	432 (2.7)	1,583 (10.0)
자 가	8,897	(6.9)	(6.9)	(8.9)	(13.8)	(22.4)	(14.1)	(5.5)	(4.4)	(17.0)
전 세	3,331	(27.1)	(21.8)	(15.9)	(15.4)	(15.2)	(3.1)	(0.7)	(0.4)	(0.4)
월 세	2,832	(35.8)	(20.0)	(13.1)	(11.5)	(12.7)	(5.3)	(0.8)	(0.4)	(0.4)
사글세	225	(39.9)	(18.4)	(10.4)	(9.5)	(14.0)	(3.5)	(1.1)	(1.1)	(2.0)
무 상	604	(19.6)	(14.6)	(11.4)	(12.9)	(22.1)	(7.2)	(3.1)	(2.3)	(6.5)

- 주1) 계에는 거주기간 미상가구 포함
- 주2) 사글세는 일정기간 동안의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매월치 집세를 공제하는 임차 형태

<표 2> 주거 보유형태별 평균 임차료
(단위: 천가구, 만원)

구 분	가구(주거전용)		평균임차료	
	가구수	구성비(%)	보증금	월세
계	15,361	100.0	-	-
자 가	8,681	56.5	-	-
전 세	3,238	21.1	5,109	-
월 세	2,672	17.4	1,157	21
사글세	210	1.4	-	28
무 상	560	3.6	-	-

주) 가구수에는 영업점용가구(임차료에 영업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 528천 가구 제외

<표 3> 전세가구의 주택형태 및 전세금 규모
(단위: 천가구, %, 만원)

구 분	계	500만원 미만	500~1000	1000~2000	2000~3000	3000~4000	4000~5000	5000~1억원	1억원 이상	평균 전세금
2000	3,783	(1.5)	(4.3)	(21.9)	(28.8)	(17.5)	(9.6)	(13.8)	(2.6)	3,210
2005	3,238	(1.2)	(1.9)	(12.1)	(20.5)	(16.0)	(10.5)	(26.2)	(11.7)	5,109
주택	3,192	(1.2)	(1.9)	(12.2)	(20.6)	(16.0)	(10.3)	(26.1)	(11.8)	5,106
단독주택	1,453	(0.9)	(3.4)	(19.3)	(28.2)	(19.1)	(10.7)	(17.1)	(1.4)	3,207
아파트	1,325	(1.6)	(0.6)	(5.0)	(11.8)	(11.9)	(8.9)	(35.2)	(24.9)	7,409
연립주택	107	(2.9)	(1.7)	(11.2)	(22.8)	(17.5)	(12.2)	(25.0)	(6.5)	4,247
다세대주택	279	(0.1)	(0.4)	(10.5)	(21.8)	(18.3)	(13.3)	(29.6)	(6.0)	4,474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28	(0.7)	(1.8)	(10.4)	(20.0)	(20.8)	(14.0)	(28.0)	(4.4)	4,155
주택이외의 거처	46	(1.0)	(1.3)	(4.9)	(12.0)	(15.0)	(23.1)	(34.5)	(8.2)	5,317

- ①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대체로 임차 가구의 거주기간보다 길게 나타나는데, 자가 가구 중 10년 이상 장기보유 가구는 41%를 차지하지만 무상 임대를 제외한 비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4~8% 수준에 불과하다.
- ② 2005년 주거전용시설에서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가구는 3,238천 가구이고 이들 가구의 평균전세금은 5,109만원이며, 아파트의 평균전세금은 7,409만원으로 단독주택의 평균전세금에 비해 두 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료를 월세나 사글세로 지불하는 가구의 경우 평균월세금은 약 21.5만원 수준이다.
- ③ 2000년에는 전세금이 2천만원~3천만원인 가구가 전체 전세 가구의 28.8%로 가장 많았지만 2005년에는 5천만원~1억원 구간이 26.2%로 가장 많아졌으며, 전국의 평균 전세금은 같은 기간 중 3,210만원에서 5,109만원으로 약 59.2% 상승하였다.
- ④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보유 형태는 자가 가구이며, 그 다음이 전세, 월세의 순이다. 전체 가구의 주택 형태로는 단독주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순이다.
- ⑤ 2005년 전세 가구 중 전세금이 1억원을 넘는 가구는 전체 전세 가구의 11.7%를 차지하며, 전세금이 5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전체 전세 가구의 1.2%를 차지한다.

17. 다음 <표>와 <그림>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지역별 인구밀도 및 인구접근도
(단위 : 명/㎢, m)

구분 지역	2000년		2005년	
	인구밀도	인구접근도	인구밀도	인구접근도
전 국	464	46.4	474	45.9
서 울	16,342	7.8	16,181	7.9
부 산	4,831	14.4	4,610	14.7
대 구	2,801	18.9	2,780	19.0
인 천	2,582	19.7	2,544	19.8
광 주	2,698	19.3	2,827	18.8
대 전	2,535	19.9	2,673	19.3
울 산	961	32.3	991	31.8
경 기	886	33.6	1,028	31.2
강 원	90	105.5	88	106.6
충 북	197	71.2	196	71.4
충 남	215	68.2	220	67.4
전 북	235	65.2	221	67.2
전 남	167	77.5	151	81.4
경 북	143	83.6	138	85.0
경 남	283	59.4	290	58.7
제 주	278	60.0	286	59.1

주) 인구접근도(m)는 ㎢당 인구를 동일간격으로 배치할 경우의 개인 간 거리를 나타냄.

<그림> 지역별 인구변화(1995~2005년)

〈보 기〉

ㄱ. 2000년 대비 2005년에 인구밀도가 증가한 지역은 7개 지역이다.

ㄴ. 인구접근도가 큰 순서대로 지역을 배열하면, 2000년과 2005년의 순서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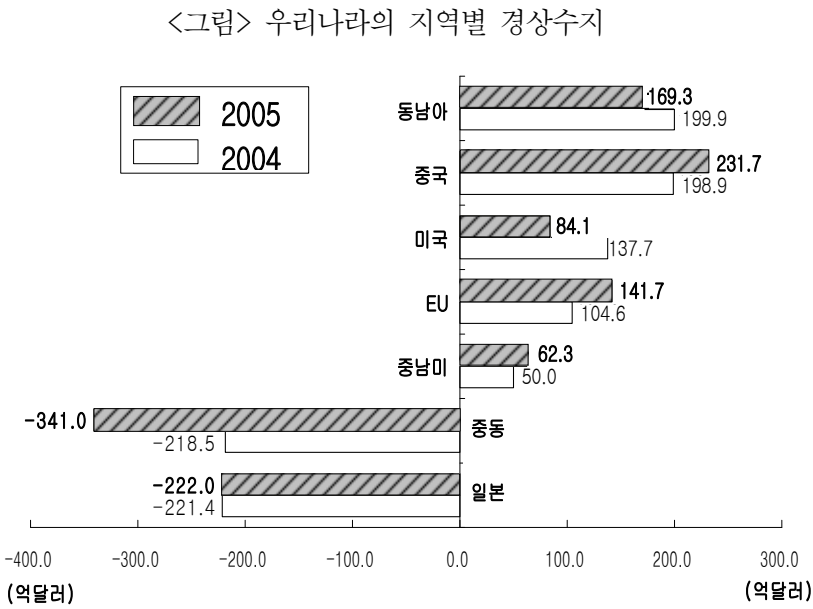
ㄷ. 2000년 대비 2005년에 인구밀도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이다.

ㄹ. 2000년 대비 2005년에 전남의 인구접근도 증가폭은 전북의 인구접근도 증가폭보다 2배 이상 크다.

ㅁ. 1995년 대비 2005년에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경기이고,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경남이다.

- ① ㄱ, ㅁ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ㅁ
- ⑤ ㄴ, ㄹ, ㅁ

19. 다음 <그림>과 <표>는 우리나라의 2004, 2005년 지역별 경상수지와 미국에 대한 항목별 경상수지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항목별 경상수지
(단위 : 억달러)

구 분	2003	2004(A)	2005(B)	B-A
경 상 수 지	69.7	137.8	84.1	-53.7
상 품 수 지	104.9	150.2	123.3	-26.9
수 출	352.6	441.4	433.0	-8.4
	(7.1)	(25.2)	(-1.9)	
수 입	247.7	291.2	309.7	18.5
	(9.5)	(17.6)	(6.3)	
서 비 스 수 지	-33.3	-27.8	-40.2	-12.4
운 수	-0.5	9.5	12.4	2.9
여 행	-14.4	-23.2	-32.7	-9.5
기타서비스	-18.4	-14.1	-19.9	-5.8
<사업서비스>	-10.8	-5.0	-8.8	-3.8
소 득 수 지	9.3	22.6	5.8	-16.8
<배 당>	-14.1	-21.8	-32.9	-11.1
경상이전수지	-11.2	-7.2	-4.8	2.4

주) ()는 전년대비 증감률(%)

18. 다음 <표>는 인터넷사용자의 인터넷 공유활동 참여 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성별·연령별 인터넷 공유활동 참여율(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카페/ 커뮤니티 이용	퍼나르기 경험	블로그/ 미니홈피 운영	댓글 달기	UCC 게시 경험
성별	남성	79.1	64.1	49.9	52.2	46.1
	여성	76.4	59.6	55.1	38.4	40.1
연령	10대	75.1	63.9	54.7	44.3	51.3
	20대	88.8	74.4	76.3	47.3	54.4
	30대	77.3	58.5	46.3	44.0	37.5
	40대	66.0	48.6	27.0	48.2	29.6

주1) UCC: 사용자 제작 콘텐츠
주2) 성별·연령별 조사인원은 동일함.

〈보 기〉

ㄱ.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터넷상의 공유활동 참여에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다.

ㄴ. 블로그/미니홈피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녀간 참여율 격차가 가장 큰 영역은 댓글 달기이다.

ㄷ. 10대와 30대의 공유활동 참여율을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두 연령대의 활동 순위가 동일하다.

ㄹ. 2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공유활동 참여율이 낮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ㄷ

〈보 기〉

ㄱ. 위 7개 지역 전체에 대한 2005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126억달러 정도 흑자를 기록하였다.

ㄴ. 위 7개 지역 전체에 대한 전년대비 2005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줄어들었다.

ㄷ. 전년대비 2005년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대(對)중국, EU 및 중남미에서는 확대된 반면 대(對)미국 및 동남아에서는 축소되었다.

ㄹ. 전년대비 2005년도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항목별 경상수지를 보면 상품수지와 소득수지의 흑자는 줄고 서비스수지의 적자는 늘어났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0. 다음 <표>와 <그림>은 우리나라의 2005년도 남녀사망자 수에 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2005년 남녀사망자 수의 연령대별 분포
(단위 : 천명(%))

연 령	여성(구성비)	남성(구성비)
0-9세	1.3(1.2)	1.7(1.2)
10-19세	0.5(0.5)	1.0(0.7)
20-29세	1.5(1.4)	2.6(1.9)
30-39세	2.8(2.5)	5.7(4.2)
40-49세	5.3(4.8)	14.6(10.8)
50-59세	6.8(6.1)	19.2(14.2)
60-69세	14.5(13.2)	31.6(23.3)
70-79세	30.1(27.3)	33.7(24.9)
80세 이상	47.3(43.0)	25.4(18.8)
계	110.1(100.0)	135.5(100.0)

<그림> 2005년 연령대별 남녀사망률비

21. 다음 <표 1>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강원도의 전국대비 총가구수 및 농가호수, 고랭지 농가호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또 <표 2>는 같은 기간 강원도의 전국대비 총인구 및 농가인구, 고랭지 농가인구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전국대비 총 가구수 및 농가호수
(단위 : 호)

구 분	전국 총 가구수(A)	전국농가 호수(B)	B/A (%)	강 원 도					
				가구수(C)	농가 호수(D)	고랭지 농가호수(E)	D/C (%)	E/C (%)	E/D (%)
1990	11,354,540	1,767,033	15.6	413,793	100,689	74,908	24.3	18.1	74.4
1995	12,961,138	1,499,329	11.6	459,469	83,126	61,719	18.1	13.4	74.2
2001	14,834,000	1,353,687	9.13	487,420	78,578	57,832	16.1	11.9	73.6
연평균 증감률(%) (’95~’01)	2.27	-1.69	-	0.99	-0.93	-1.08	-	-	-

<표 2> 전국대비 총인구 및 농가인구
(단위 : 명)

구 분	전국 총 인구(A)	전국농가 인구(B)	B/A (%)	강 원 도					
				인구(C)	농가 인구(D)	고랭지 농가인구(E)	D/C (%)	E/C (%)	E/D (%)
1990	42,869,283	6,661,322	15.5	1,580,430	329,596	291,623	20.9	18.5	88.5
1995	45,092,991	4,692,040	10.4	1,530,000	281,260	205,782	18.4	13.4	73.2
2001	47,008,111	3,933,250	8.37	1,556,904	237,277	170,228	15.2	10.9	71.7
연평균 증감률(%) (’95~’01)	0.69	-2.90	-	0.29	-2.79	-3.11	-	-	-

주1) 남녀사망률비=남성사망률/여성사망률
주2) 남성사망률=남성사망자수/남성인구수
주3) 여성사망률=여성사망자수/여성인구수

<보 기>

- ㄱ. 여성은 80세 이상에서 남성은 70대에서 가장 많이 사망한다.
- 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사망률이 여성사망률보다 높다.
- ㄷ. 60대 여성이 한 명 사망할 때 60대 남성이 2.55명 사망한다.
- ㄹ. 70대 여성사망자 수는 남성보다 약 3,600명 적지만 전체 여성사망자 수 중 70대 여성사망자 수의 비율이 전체 남성 사망자 중 70대 남성사망자의 비율보다 높은 것은 남성사망자의 절대수가 많기 때문이다.
- ㅁ. 9세 이하 집단에서 남녀 인구수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면 9세 이하 여아 한 명 사망할 때 남아는 약 1.3명 사망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ㅁ
- ③ ㄱ, ㄴ, ㄹ
- ④ ㄷ, ㄹ
- ⑤ ㄴ, ㄷ, ㅁ

<보 기>

- ㄱ. 1995년부터 2001년 사이 강원도의 농가호수 연평균 감소율은 전국 농가호수 연평균 감소율보다 낮다.
- ㄴ. 강원도의 농가호수 중 고랭지 농가호수의 비율은 약 74% 수준이다.
- ㄷ. 강원도 농가인구 중 고랭지 농가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ㄹ. 1995년부터 2001년 사이, 강원도 고랭지 농가인구의 연평균 감소율은 전국 농가인구의 연평균 감소율보다 낮으며 도내 농가인구의 연평균 감소율보다도 낮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 ⑤ ㄴ, ㄷ, ㄹ

22.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5대 범죄 발생과 검거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우리나라의 연도별 5대 범죄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단위 :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발생	520,763	532,243	472,369	497,066	455,840	487,847
	검거	385,087	396,885	400,359	399,119	363,437	354,089
살인	발생	941	1,051	957	998	1,084	1,061
	검거	955	1,076	994	1,038	1,041	1,023
강도	발생	5,461	5,692	5,906	7,292	5,834	5,172
	검거	4,524	4,670	5,957	7,165	4,941	4,021
강간	발생	6,855	6,751	6,119	6,531	6,959	7,323
	검거	6,139	6,021	5,522	5,899	6,322	6,443
절도	발생	173,876	180,704	175,457	187,352	155,393	188,960
	검거	68,564	78,777	125,593	114,920	80,570	80,785
폭력	발생	333,630	338,045	283,930	294,893	286,570	285,331
	검거	304,905	306,341	262,293	270,097	270,563	261,817

주) 검거율 = $\frac{\text{검거건수}}{\text{발생건수}}$

<보 기>

- ㄱ. 2000~2003년의 기간동안 살인은 발생건수보다 검거건수가 더 많았다.
- ㄴ. 절도의 경우 2003년에 검거율이 가장 높았다.
- ㄷ. 강도의 경우 2005년에 검거율이 가장 낮았다.
- ㄹ. 2002년 이후 강간 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 ㅁ. 5대 범죄의 검거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ㅁ
- ④ ㄱ, ㄹ
- ⑤ ㄴ, ㅁ

23. 다음 <표 1>과 <표 2>는 한국을 포함한 OECD 10개 회원국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등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OECD 10개 회원국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단위 : %)

국 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그리스	62.4	48.2	77.2	11.9	17.8	8.1
네덜란드	72.9	62.9	82.8	4.3	5.5	3.5
뉴질랜드	75.2	67.1	83.5	7.6	7.4	7.7
멕시코	63.2	41.5	87.1	3.0	3.6	2.6
미국	77.4	70.7	84.2	4.5	4.7	4.5
벨기에	63.2	53.8	72.5	9.4	11.7	7.6
스웨덴	78.1	75.5	80.7	8.4	8.0	8.8
이탈리아	57.8	43.9	72.0	12.2	16.4	9.5
터키	54.0	30.0	78.8	6.6	6.7	6.6
한국	64.0	50.3	77.9	7.1	5.8	7.9

주) 경제활동참가율 = $(15\sim 65\text{세 경제활동참가자수} / 15\sim 65\text{세 인구수}) \times 100$
경제활동참가자 = 취업자 + 실업자
실업률 = $(\text{실업자수} / \text{경제활동참가자수}) \times 100$

<표 2> OECD 10개 회원국의 성별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단위 : %)

국 가	전체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여성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남성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 비율
그리스	9.2	15.9	5.3	63.6
네덜란드	30.0	54.8	12.4	75.8
뉴질랜드	22.8	37.6	10.6	74.3
멕시코	15.0	28.3	8.2	63.5
미국	13.4	19.1	8.2	68.0
벨기에	16.3	32.2	4.9	82.4
스웨덴	13.5	22.0	5.6	77.3
이탈리아	11.8	22.7	5.5	70.4
터키	6.2	13.3	3.4	60.3
한국	6.8	9.3	5.2	54.8

주) 시간제 근로자 : 일상적으로 주당 3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보 기>

- ㄱ. 한국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국가의 여성 실업률은 한국보다 모두 높다.
- 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전체 실업률이 낮다.
- ㄷ. 여성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 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비율이 높다.
- ㅁ. 네덜란드의 여성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지만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비율이 벨기에보다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네덜란드의 남성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벨기에보다 높은 것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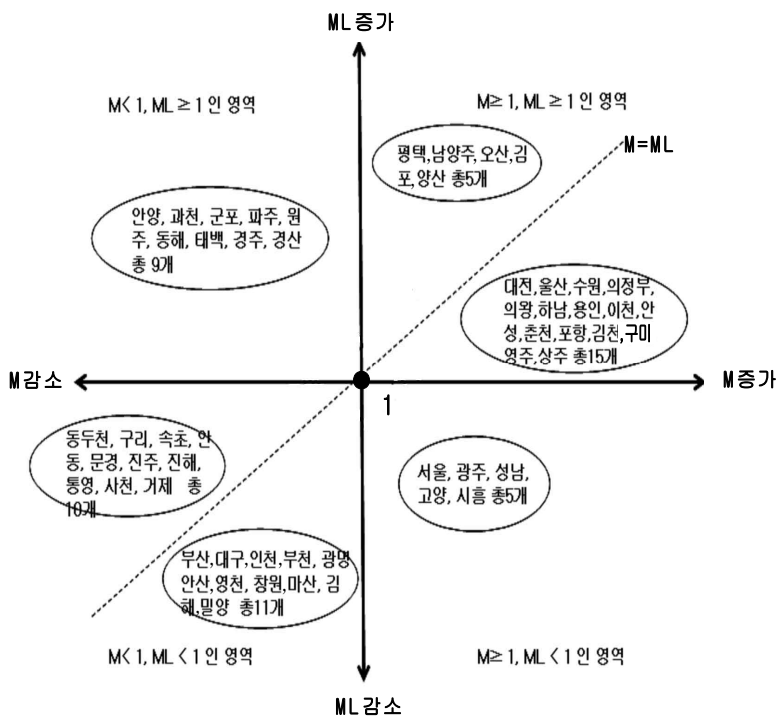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ㄴ,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ㄱ, ㄷ, ㄹ, ㅁ

24. 다음 <정보>와 <그림>에 비추어 볼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 보>

아래 <그림>은 오염저감활동을 생산활동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고 제외한 경우와 오염저감활동을 생산활동의 일부로 포함한 경우의 생산성변화(성장 혹은 감소)를 우리나라의 도시에 적용한 것이다. 즉, <그림>은 인접한 두 기간에 걸쳐서 측정한 우리나라 도시들의 오염저감활동을 제외한 생산성변화(M)와 오염저감활동을 포함한 생산성변화(ML)를 보여준다. M과 ML이 각각 1보다 클 경우는 생산성이 각각 전기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반대로 M과 ML이 각각 1보다 작을 경우는 생산성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오염저감활동을 포함한 생산성변화(ML)가 오염저감활동을 제외한 생산성변화(M)보다 클 경우 환경적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합하다고 간주한다.

<그림> 오염저감활동을 포함한 생산성변화와 포함하지 않은 생산성변화



- <보 기>
- ㄱ. 서울이 속한 영역은 오염저감활동을 제외한 생산성이 전기에 비하여 증가한 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합하다.
 - ㄴ. 안양이 속한 영역은 오염저감활동을 포함한 생산성이 전기보다 증가하였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합하다.
 - ㄷ. 대전이 속한 영역은 두 생산성이 모두 전기와 비교하여 증가하였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합하다.
 - ㄹ. 동두천이 속한 영역과 부산이 속한 영역은 두 생산성이 모두 전기에 비하여 감소했으나 동두천이 부산보다 지속가능한 성장관점에서 유리하다.

25. 다음 <표>는 한국의 제조업종에 대한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의 개별오염원단위 변화지수와 오염물들을 통합한 통합오염원단위 변화지수를 제시해 주고 있다. 개별오염원단위 변화지수와 통합오염원단위 변화지수는 모두 1보다 낮을수록 오염이 적게 발생한 것이므로 환경친화적으로 간주되고 1보다 높을수록 비환경친화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개별오염원단위 변화지수와 통합오염원단위 변화지수 비교

구 분	부문 업종	황산화물 변화지수 (A)	질산화물 변화지수 (B)	통합배출량 변화지수 (c1)	산출량 변화지수 (c2)	통합오염원 단위 변화지수 (C)
경공업 일 부	섬유제품	0.843	1.032	0.946	1.034	0.915
	의복 및 모피제품	0.943	0.816	0.926	0.900	1.029
	출판, 인쇄, 기록매체	0.895	1.264	1.211	1.025	1.181
	고무, 플라스틱제조	1.327	1.477	1.472	1.057	1.393
	채광자료 가공처리	2.299	1.763	2.983	1.104	2.702
중공업 일 부	펄프, 종이제품	0.828	1.046	1.144	1.026	1.115
	코크스,석유정제,핵연료	0.612	0.781	1.433	1.139	1.258
	화학물,화학제품	0.964	1.195	1.626	1.058	1.537
	비금속광물	0.943	1.043	1.033	0.980	1.054
	제1차금속	0.855	0.960	1.611	1.036	1.555
	컴퓨터사무,계산,회계	0.680	0.636	0.748	1.463	0.511
	기타운송장비	1.055	1.220	1.171	1.104	1.061
평 균	전체	0.904	0.958	1.133	1.039	1.091
	경공업	0.962	1.036	1.132	1.006	1.125
	중공업	0.844	0.896	1.117	1.072	1.042
	중공업내 오염업종	0.830	0.995	1.347	1.047	1.287
	중공업내 여타중공업	0.852	0.840	0.994	1.089	0.913

주) A, B : 개별오염원단위 변화지수
C : 통합오염원단위 변화지수 = 통합배출량 변화지수(c1)/산출량 변화지수(c2)

- <보 기>
- ㄱ. 황산화물 변화지수와 질산화물 변화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제1차 금속업이 고무, 플라스틱제조업보다 환경친화적이다.
 - ㄴ. 통합오염원단위 변화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제1차 금속업이 고무, 플라스틱제조업보다 환경친화적이다.
 - ㄷ. 의복 및 모피제품업은 황산화물 변화지수와 질산화물 변화지수로 볼 때 환경친화적이지만, 통합오염원단위 변화지수로 볼 때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것은 산출량 변화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 ㄹ. 통합오염원단위 변화지수로 볼 때, 위 <표>에 나타난 업종 중 경공업에서는 섬유제품업이, 중공업에서는 컴퓨터사무, 계산, 회계업이 가장 환경친화적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ㄹ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ㄹ

26. 다음 <표>는 2001~2005년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소득계층별로 규모효율의 관점에서 최적규모농가, 규모확대가 필요한 농가, 규모축소가 필요한 농가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농가의 소득계층별 생산규모

구 분		대상 농가수	최적규모 농가수	생산규모 확대필요	생산규모 축소필요
'01년	1계층	342	16(4.6)	195(57.0)	131(38.4)
	2계층	332	12(3.6)	242(72.9)	78(23.5)
	3계층	311	9(2.8)	258(82.9)	44(14.3)
	4계층	308	5(1.6)	256(83.1)	47(15.3)
	5계층	263	6(2.2)	233(88.6)	24(9.2)
	계	1,556	48(3.0)	1,184(76.0)	324(21.0)
'02년	1계층	362	12(3.3)	174(48.0)	176(48.7)
	2계층	365	8(2.1)	262(71.8)	95(26.1)
	3계층	351	6(1.7)	298(85.0)	47(13.3)
	4계층	335	8(2.3)	309(92.2)	18(5.5)
	5계층	264	10(3.8)	236(89.4)	18(6.8)
	계	1,677	44(2.6)	1,279(76.2)	354(21.2)
'03년	1계층	377	20(5.3)	147(38.9)	210(55.8)
	2계층	363	8(2.2)	206(56.7)	149(41.1)
	3계층	359	8(2.2)	221(61.6)	130(36.2)
	4계층	343	8(2.3)	227(66.2)	108(31.5)
	5계층	299	13(3.8)	243(81.3)	43(14.4)
	계	1,741	57(3.2)	1,044(60.0)	640(36.7)
'04년	1계층	363	26(7.1)	132(36.3)	205(56.6)
	2계층	377	11(2.9)	199(52.8)	167(44.3)
	3계층	369	16(4.3)	225(60.9)	128(34.8)
	4계층	349	9(2.6)	279(80.0)	61(17.4)
	5계층	319	7(2.2)	271(84.9)	41(12.9)
	계	1,777	69(3.9)	1,106(62.2)	602(33.9)
'05년	1계층	372	21(5.6)	172(46.2)	179(48.2)
	2계층	374	11(2.9)	254(67.9)	109(29.2)
	3계층	365	8(2.2)	273(74.8)	84(23.0)
	4계층	353	4(2.2)	281(79.6)	68(19.2)
	5계층	297	8(2.7)	256(86.2)	33(11.1)
	계	1,761	52(2.9)	1,236(70.1)	473(27.0)

주1) 괄호내의 수치는 각 소득계층에 속한 농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함.
주2) 1계층이 가장 소득이 높고 5계층이 가장 소득이 낮음.

- <보 기>
- ㄱ. 2002년을 제외하면 최적규모에 속한 농가의 비율은 대체로 1계층에 속한 농가가 여타계층에 속한 농가보다 높다.
 - ㄴ. 연도별로 생산규모 확대가 필요한 농가수는 1계층에서 5계층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생산규모 축소가 필요한 농가수는 1계층에서 5계층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 ㄷ. 연도별로 최적규모농가의 비율은 1계층에서 5계층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 ㄹ. 연도별로 2003년을 제외하고 4계층은 5계층보다 규모확대가 필요한 농가수와 규모축소가 필요한 농가수가 모두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 ㅁ. 연도별로 대상 농가수는 대체로 1, 2계층에 속한 농가가 4, 5계층의 농가보다 많다.

- ① ㄱ, ㄴ,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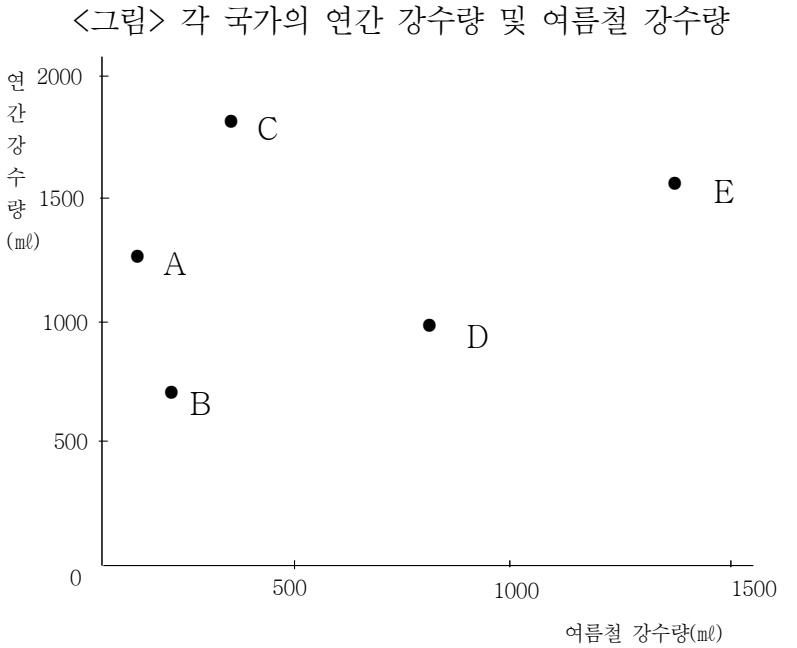
② ㄴ,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⑤ ㄷ, ㄹ

27. 다음 <그림>에서 B와 D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주) 여름철 강수 집중도 = $\frac{\text{여름철강수량}}{\text{연간강수량}}$

- <정 보>
- 여름철 강수 집중도는 (라)국가와 (마)국가가 (가)국가나 (나)국가보다 2배 이상 높다.
 - (나)국가는 (가)국가보다 연간 강수량이 적다.
 - (라)국가는 (마)국가보다 연간 강수량이 많다.
 - (나)국가는 (다)국가에 비해서 연간 강수량은 많지만, 여름철 강수량은 적다.

- B

D

① (가), (다)

② (다),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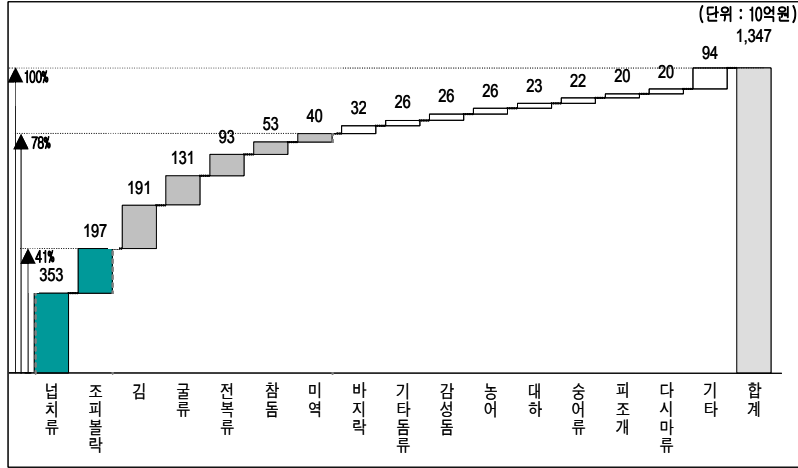
③ (다), (라)

④ (나), (마)

⑤ (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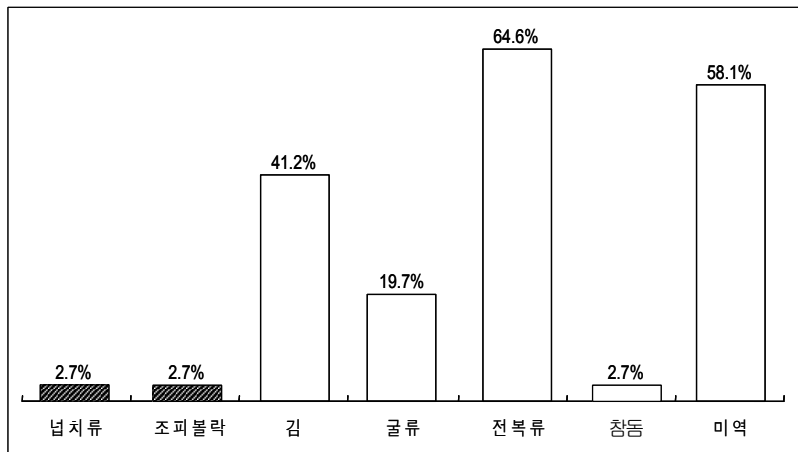
28. 다음 <그림 1>과 <그림 2>는 우리나라 수산양식 품종별 생산액과 주요 품종별 총자산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1> 우리나라 수산양식 품종별 생산액(2005년 기준)



주) 어류 : 넙치류, 조피볼락, 참돔, 감성돔, 기타돌류, 농어, 송어류
 해조류 : 김, 미역, 다시마류
 패류 : 굴류, 전복류, 바지락, 피조개
 갑각류 : 대하

<그림 2> 우리나라 수산양식 품종별 총자산수익률(2005년 기준)



주) 총자산수익률은 순수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보 기>

- ㄱ. 수산양식 총자산수익률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수산양식은 생산액 상위 7개 품종인 넙치류, 조피볼락, 김, 굴류, 전복류, 참돔, 미역 위주로 하고, 그 외 해조류나 패류는 수산양식에서 제외하거나 생산액을 줄여야 한다.
- ㄴ.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총생산액에서 넙치류와 조피볼락의 생산액이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양식어종의 총자산수익률은 김이나 미역보다 낮다.
- ㄷ.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총생산액에서 수익성이 낮은 넙치류, 조피볼락 및 참돔의 생산액이 전체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ㄹ.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총생산액에서 넙치류 등 상위 7개 품종의 양식생산액이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패류나 해조류의 수익성은 어류에 비해 높은 편이다.

- ① ㄱ, ㄴ
 ③ ㄴ, ㄷ
 ⑤ ㄷ, ㄹ

- ② ㄱ, ㄹ
 ④ ㄴ, ㄹ

29. 다음 <표>는 응답자의 학력에 따른 안락사 찬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최종학력에 따른 안락사 찬성여부

(단위 : 명, %)

구 분			안락사에 대한 의견		전 체
			찬 성	반 대	
최 종 학 력	고졸 미만	응답인원	()	()	()
		해당학력의 %	60.7	39.3	100.0
		찬성 혹은 반대집단 중의 %	16.1	22.4	18.1
	고졸	응답인원	()	()	()
		해당학력의 %	68.5	31.5	100.0
		찬성 혹은 반대집단 중의 %	52.7	52.0	52.5
	대졸	응답인원	()	()	()
		해당학력의 %	69.5	30.5	100.0
		찬성 혹은 반대집단 중의 %	6.3	5.9	6.2
	석사	응답인원	()	()	()
		해당학력의 %	70.7	29.3	100.0
		찬성 혹은 반대집단 중의 %	16.0	14.1	15.4
	박사	응답인원	()	()	()
		해당학력의 %	77.3	22.7	100.0
		찬성 혹은 반대집단 중의 %	8.9	5.6	7.9
전체		응답인원	651	304	955
		전체응답자의 %	68.2	31.8	100.0
		찬성 혹은 반대집단 중의 %	100.0	100.0	100.0

주1) '해당학력의 %'는 해당학력자 중 안락사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견의 비율을 의미한다.

주2) 찬성집단 중의 % = $\frac{\text{해당학력의찬성응답자}}{\text{전체찬성응답자}}$, 반대집단 중의 % = $\frac{\text{해당학력의반대응답자}}{\text{전체반대응답자}}$

<보 기>

- ㄱ. 고졸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안락사에 대한 찬성이 16.1%, 반대가 22.4%이므로 안락사 반대 의견이 더 많다.
- ㄴ. 최종학력이 석사인 응답자 중 70.7%가 안락사에 찬성한다.
- ㄷ. 학력이 높아질수록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진다.
- ㄹ. 고졸학력자 중 안락사에 대한 찬성 인원은 응답자 전체의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인원보다 많다.
- ㅁ. 박사학위 소지자 중 안락사에 대한 찬성 인원은 고졸미만 학력 중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인원보다 많다.

- ① ㄱ, ㄴ, ㄷ
 ③ ㄱ, ㅁ
 ⑤ ㄷ, ㄹ, ㅁ

- ② ㄱ, ㄹ
 ④ ㄴ, ㄷ, ㅁ

30. 다음 <표 1>, <표 2>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임금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구성된다고 하자.

<표 1> 비정규직 고용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임금근로자	13,540	14,030	14,149	14,584	14,968	15,351
비정규직	3,635	3,839	4,606	5,394	5,483	5,457
비정규직 비율(%)	26.8	27.4	32.6	37.0	36.6	35.5

<표 2> 성별·연령별 비정규직근로자
(단위 : 천명)

구 분	2005				2006			
	비정규직				비정규직			
	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 체>	5,483	3,615	1,045	1,908	5,457	3,626	1,135	1,933
남 자	2,736	1,864	309	967	2,705	1,914	345	918
여 자	2,747	1,751	736	941	2,752	1,712	790	1,015
15~19세	168	112	91	26	144	90	82	25
20~29세	1,237	944	229	256	1,141	899	225	198
30~39세	1,371	903	238	466	1,385	945	267	433
40~49세	1,364	842	222	534	1,325	800	245	558
50~59세	800	483	132	364	851	521	140	413
60세 이상	543	331	133	262	611	371	176	306

- 주) 비정규직 내 유형별 중복으로 규모 및 비율의 합계는 불일치함.
계는 비정규직 내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계임.
- ① 2006년 정규직근로자는 9,894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64.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409천명 증가하였다.
 - ② 2006년 비정규직근로자는 전년대비 26천명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 대비 비율은 1.1%포인트 하락하였다.
 - ③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전년대비 가장 많은 수가 증가한 해는 2003년이고 2006년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하였다.
 - ④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남자는 비정규직근로자 수가 줄고 여자는 비정규직근로자 수가 오히려 늘었는데, 특히 여성 비정규직근로자 수 증가는 시간제근로자 수와 비전형근로자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 ⑤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비정규직근로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층은 20대이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근로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31. 다음 <표>와 <정보>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품목별 석유소비량 추이에 관한 자료와 이에 대한 설명이다. A, B, C, D, E 항목에 들어갈 내용을 A-B-C-D-E 순서대로 묶은 것은?

<표> 품목별 석유소비량 추이(1990~2002년)
(단위 : 1,000배럴)

연도\품목	합 계	A	B	C	D	E	F	G	기타
1990	356,349	23,693	24,942	97,449	2,384	1,744	104,547	12,755	88,835
1991	424,666	28,713	25,599	114,521	2,472	1,829	122,632	12,723	116,180
1992	514,224	35,248	34,249	127,434	2,622	1,760	140,104	11,410	161,396
1993	564,576	42,508	43,259	138,021	2,741	1,742	145,548	12,879	177,878
1994	621,498	51,089	47,835	147,269	2,818	1,597	159,742	14,326	196,825
1995	677,210	59,382	62,669	163,113	3,118	1,664	162,793	16,273	208,200
1996	721,063	67,971	73,662	172,406	3,179	1,657	163,236	17,849	221,105
1997	793,898	71,358	85,025	166,790	2,760	1,613	160,367	19,302	286,683
1998	670,278	61,089	61,457	120,382	2,231	1,284	107,130	17,290	299,425
1999	719,657	63,879	76,928	126,072	2,826	1,513	116,271	18,375	313,813
2000	742,557	62,382	69,909	129,429	2,966	1,436	125,319	18,231	329,465
2001	743,666	62,707	61,707	132,168	2,714	1,510	123,848	20,073	338,940
2002	762,868	64,078	58,464	138,045	2,956	1,636	116,907	20,057	360,725

- <정 보>
- 석유소비량 중에서 기타 품목을 제외하면 경유와 병커C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질중유와 중유가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1992년의 전년대비 석유소비량 증가율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기타-등유-휘발유-병커C유 등의 품목 순서이고, 1999년의 전년대비 석유소비량 증가율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경질중유-등유-중유-병커C유 등의 품목 순서이다.
 - 석유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8년에 처음으로 감소한 품목은 휘발유, 등유이다.

- | | | | | |
|-------|-------|--------|--------|--------|
| A | B | C | D | E |
| ① 휘발유 | - 등유 | - 경유 | - 경질중유 | - 중유 |
| ② 항공유 | - 휘발유 | - 병커C유 | - 경질중유 | - 등유 |
| ③ 휘발유 | - 등유 | - 경유 | - 중유 | - 경질중유 |
| ④ 등유 | - 휘발유 | - 경유 | - 중유 | - 경질중유 |
| ⑤ 등유 | - 휘발유 | - 병커C유 | - 경질중유 | - 중유 |

32. 다음 <표 1>과 <표 2>는 지정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연도별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현황
(단위 : 톤)

종 류	2003년		2004년	
	계	%	계	%
합 계	2,913,245	100.0	2,975,548	100.0
폐 산	765,704	26.3	814,348	27.4
폐알칼리	113,244	3.9	75,826	2.6
폐 유	602,657	20.7	610,649	20.5
폐유기용제	508,249	17.4	510,936	17.2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4,145	1.9	52,949	1.8
분 진	384,839	13.2	388,166	13.0
오 니 류	222,179	7.6	211,389	7.1
감염성폐기물	37,327	1.3	43,127	1.4
기 타	224,901	7.7	268,158	9.0

<표 2> 2004년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현황
(단위 : 톤)

폐기물종류	발생내역			2004년 처리내역				보관량
	전년도 이월량	'04년 발생량	구성비 (%)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	
합 계	65,306	2,975,548	100.0	1,818,395	491,960	518,766	136,316	75,419
폐 산	7,362	814,348	27.4	739,954	2,886	9	65,737	13,125
폐알칼리	28,132	75,826	2.6	35,445	728	218	39,433	28,134
폐 유	13,960	610,649	20.5	402,249	197,393	622	9,255	15,090
폐유기용제	6,219	510,936	17.2	360,479	146,657	-	234	9,785
폐합성고분자화합물	762	52,949	1.8	29,163	23,412	90	706	340
분 진	2,340	388,166	13.0	155,432	-	226,086	6,399	2,589
오 니 류	2,473	211,389	7.1	21,103	7,544	181,376	1,486	2,353
감염성폐기물	61	43,127	1.4	184	35,263	-	7,574	167
기 타	3,997	268,158	9.0	74,386	78,077	110,365	5,492	3,836

<보 기>

- ㄱ. 2004년에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총 2,975,548톤으로 전년도 (2,913,245톤)보다 2.1%(62,303톤) 증가하였다.
- ㄴ. 2004년 지정폐기물 발생량 중 폐산, 폐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은 2003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폐알칼리, 오니류는 감소하였다.
- ㄷ. 2004년 폐산과 폐유기용제는 재활용 비율이 높은 반면에 분진과 오니류는 매립 비율이 높다.
- ㄹ. 2004년 지정폐기물의 소각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폐유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33. 다음 <표>는 주요 상품군별 전자상거래 거래액에 관한 데이터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주요 상품군별 거래액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5년 3/4분기	2006년 2/4분기	2006년 3/4분기	전분기 대비			전년동분기 대비	
				구성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합 계	2,721.7	3,232.8	3,454.1	100.0	221.3	6.8	732.3	26.9
컴퓨터 및 주변기기	250.5	291.0	321.8	9.3	30.8	10.6	71.2	28.4
S/W(게임S/W)	24.0	21.3	20.5	0.6	-0.8	-3.9	-3.5	-14.6
가전/전자/통신기기	441.5	501.4	499.0	14.4	-2.3	-0.5	57.5	13.0
서 적	132.8	133.8	169.2	4.9	35.4	26.4	36.3	27.4
음반/비디오/악기	22.7	20.2	19.2	0.6	-1.0	-4.8	-3.5	-15.3
여행 및 예약서비스	468.2	467.6	584.0	16.9	116.4	24.9	115.9	24.7
아동/유아/완구	96.2	163.5	159.7	4.6	-3.8	-2.3	63.4	65.9
식음료	144.5	154.8	169.2	4.9	14.4	9.3	24.7	17.1
꽃	7.9	11.3	9.1	0.3	-2.2	-19.3	1.2	14.7
스포츠/레저용품	99.2	127.1	137.8	4.0	10.7	8.4	38.5	38.8
생활용품/자동차용품	265.2	310.3	323.9	9.4	13.6	4.4	58.7	22.1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	370.0	567.8	561.7	16.3	-6.2	-1.1	191.7	51.8
화장품/향수	133.9	179.8	163.9	4.7	-15.8	-8.8	30.1	22.5
사무/문구	26.7	30.4	33.3	1.0	2.9	9.7	6.6	24.7
농수산물	91.7	64.8	91.0	2.6	26.2	40.3	-0.7	-0.8
각종 서비스	19.8	20.9	17.0	0.5	-3.9	-18.7	-2.8	-14.1
기 타	126.9	166.8	173.8	5.0	7.0	4.2	47.0	37.0

<보 기>

- ㄱ. 2006년 3/4분기 기준, 거래액이 전분기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3개 분야는 농수산물, 서적, 여행 및 예약서비스 분야이고,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3개 분야는 꽃, 각종 서비스, 음반/비디오/악기이다.
- ㄴ. 2006년 3/4분기 기준, 구성비가 1.0% 미만의 소규모 분야의 거래액은 모두 1년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 ㄷ. 2006년 3/4분기 기준, 거래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직전분기 대비 감소한 분야는 모두 6개 분야이다.
- ㄹ. 2006년 3/4분기 기준, 거래액 구성비가 10% 이상인 분야는 모두 1년 전에 비해 거래액이 증가하였다.
- ㅁ. 거래액이 3천억원이 넘는 분야는 2005년 3/4분기에 3개에서 2006년 3/4분기에는 5개로 늘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34. 다음 <표 1>과 <표 2>는 1999~2001년 한국인에게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10대암의 성별 발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남자의 10대암 발생 현황

암 종	연평균 발생지수(명)	상대빈도(%)
간암	10,002	16.95
담낭암	1,594	2.70
대장암	5,784	9.80
방광암	1,831	3.10
비호지킨 림프종	1,242	2.10
식도암	1,675	2.84
위암	13,976	23.68
전립선암	1,425	2.42
췌장암	1,572	2.66
폐암	10,049	17.03
모든 암	59,010	100

<표 2> 여자의 10대암 발생 현황

암 종	연평균 발생지수(명)	상대빈도(%)
간암	3,275	7.35
갑상선암	2,977	6.68
난소암	1,330	2.99
담낭암	1,575	3.53
대장암	4,647	10.43
위암	7,295	16.37
유방암	6,083	13.65
자궁경부암	4,361	9.79
췌장암	1,130	2.54
폐암	3,565	8.00
모든 암	44,561	100

<보 기>

- ㄱ. 조사기간 동안 한국인들의 암발생율은 위암이 가장 높다.
- ㄴ. 조사기간 동안 여성이 남성보다 암발생자 수가 적다.
- ㄷ. 남녀 모두 공통으로 발병하는 암은 모두 6종류이다.
- ㄹ. 조사기간 동안 암환자 내에서 대장암에 걸려있을 확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35. 다음 <정보>와 <표>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한 몇 가지 지표의 개요와 그에 의거하여 측정한 4개 자치구의 재정상태 현황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 보>

1. 지방세수안정도
개 념 : 지방세수입의 안정적 성장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목표치 : 지표값이 높을수록 우수한 재정상태를 의미함
산출식 : $\frac{\text{현년도 지방세실제수납액} - \text{전년도 지방세실제수납액}}{\text{전년도 지방세실제수납액}} \times 100$
2. 지방세수예측도
개 념 : 지방세수 추계치에 대한 실제 징수 지방세수실적의 비율
목표치 : 0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재정상태를 의미함
산출식 : $\frac{\text{현년도 지방세 실제수납액} - \text{지방세 당초예산}}{\text{지방세 당초예산}} \times 100$
3.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개 념 : 최근 4년간 일반재원결산액에 대한 지방채상환액의 비율
목표치 : 10% 미만일 때 우수한 재정상태를 의미함
산출식 : $\frac{\text{최근 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text{최근 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
4. 세입예산반영비율
개 념 : 순세입결산액 대비 세입예산액의 비율
목표치 : 100%에 근접할수록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산출식 : $\frac{\text{세입예산액}}{\text{세입결산액} - \text{전년도 이월액}} \times 100$

<표>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상태 현황

(단위: 억원)

자치구	현년도 지방세 실제 수납액	전년도 지방세 실제 수납액	지방세 당초 예산	최근 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	최근 4년간 평균 일반재원 결산액	세입 예산액	세입 결산액	전년도 이월액
A	2,500	2,400	2,700	200	1,600	7,000	7,500	500
B	2,000	1,800	1,900	80	1,200	6,000	6,000	300
C	4,900	5,000	5,000	800	4,000	12,000	13,000	500
D	1,000	950	970	60	750	2,500	2,700	500

<보 기>

- ㄱ. 지방세수안정도 지표에서 B자치구가 A자치구보다 우수하다.
- ㄴ. 지방세수예측도 지표에서 C자치구가 B자치구보다 우수하다.
- ㄷ.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지표에서 C자치구가 D자치구보다 우수하다.
- ㄹ. 세입예산반영비율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구는 A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36. 다음 <표 1>과 <표 2>는 가장 크게 이익을 본 재테크 수단과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재테크 수단을 조사하여 소득계층별로 비교한 자료이다. A, B, C, D 항목에 들어갈 내용을 A-B-C-D 순서대로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표 1> 가장 크게 이익을 본 재테크 수단

		(단위 : %)				
소득계층		재테크 수단	A	B	C	D
연평균소득	1천만원 미만		21.4	31.8	27.1	12.1
	1~2천만원 미만		31.7	40.9	17.8	9.6
	2~3천만원 미만		39.9	37.2	17.4	5.2
	3~5천만원 미만		46.2	35.8	13.2	4.5
	5천만원 이상		59.1	26.4	9.7	4.2
전체			40.8	35.4	16.2	6.5

<표 2>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

		(단위 : %)				
소득계층		재테크 수단	A	B	C	D
연평균소득	1천만원 미만		36.4	9.1	27.3	27.3
	1~2천만원 미만		18.4	15.8	42.1	21.1
	2~3천만원 미만		33.3	22.8	35.1	7.0
	3~5천만원 미만		44.3	20.5	30.7	4.5
	5천만원 이상		54.4	19.3	21.1	3.5
전체			39.8	19.5	31.1	8.4

<정 보>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예금에서 가장 크게 이익을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 전체 응답자 중 주식으로 가장 크게 이익을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주식이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다.
- 각각의 소득계층에서 부동산이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부동산으로 가장 크게 이익을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다.
- 1~2천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에서 보험이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천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에서 부동산이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다.

- A

B

C

D
- ① 주식 - 부동산 - 예금 - 보험

② 주식 - 부동산 - 보험 - 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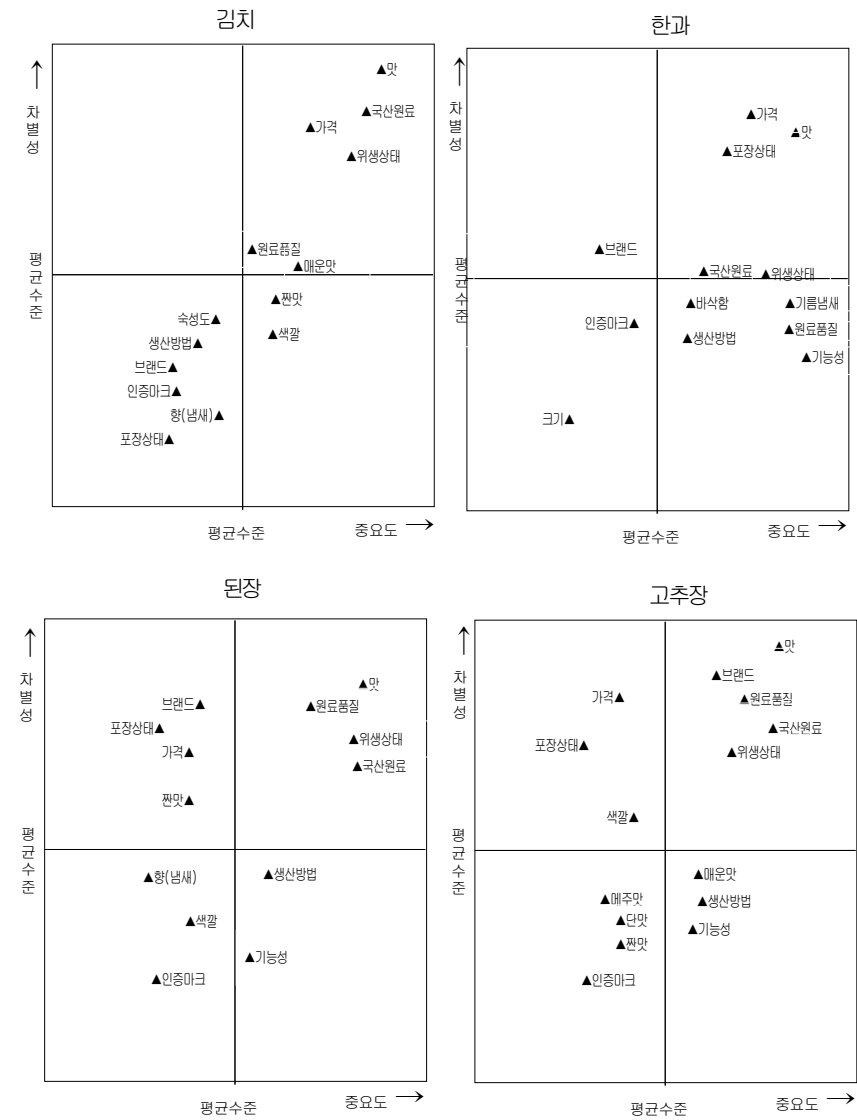
③ 부동산 - 주식 - 예금 - 보험

④ 부동산 - 주식 - 보험 - 예금

⑤ 주식 - 보험 - 예금 - 부동산

37. 다음 <그림>은 대표적인 전통식품들의 속성별 중요도와 차별성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평가결과이다. 각 <그림>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크고, 위로 갈수록 차별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전통식품들의 속성별 중요도와 차별성



<보 기>

- ㄱ. 된장에 대해서는 맛, 원료품질, 위생상태, 국산원료 등이 중요하고, 이들 속성에 따른 제품의 차별성 수준도 높다.
- ㄴ. 생산 방법은 모든 품목에서 중요도가 평균수준보다 높으나 차별성은 평균수준보다 낮다.
- ㄷ. 된장, 고추장은 포장상태가 기능성보다 중요도 측면에서 낮지만, 차별성 측면에서는 높다.
- ㄹ. 모든 품목에서 가격은 브랜드에 비해서 중요도 및 차별성이 높다.
- ㅁ. 된장, 고추장에 있어서는 국산원료가 위생상태에 비해서 중요도가 높지만, 김치 및 한과에 있어서는 국산원료가 위생상태에 비해서 중요도가 낮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ㄷ, ㅁ

④ ㄴ, ㅁ

⑤ ㄷ, ㄹ, ㅁ

38. 다음 <표>는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폐수배출업소들에 대한 단속기관의 연도별 감시·단속 내역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폐수배출업소 감시·단속 내역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7	1998	2001	2002
배출업소수	14,715	16,834	20,241	26,702	25,299	39,939	37,621	48,876	51,469
점검업소수	73,895	63,053	72,239	127,772	108,371	73,988	76,746	74,460	67,752
위반업소수	8,575	6,428	7,635	7,953	5,999	5,053	4,461	5,099	3,504
단속률	5.0	3.7	3.6	4.8	4.3	1.9	2.0	1.5	1.3
부적합률(%)	11.6	10.2	10.6	6.2	5.5	6.8	5.8	6.8	5.2
순부적합률(%)	58.3	38.2	37.7	29.8	23.7	12.7	11.9	10.4	6.8

주) 단속률= $\frac{\text{점검업소수}}{\text{배출업소수}}$, 부적합률= $\frac{\text{위반업소수}}{\text{점검업소수}}$, 순부적합률= $\frac{\text{위반업소수}}{\text{배출업소수}}$

<보 기>

- ㄱ. 단속률이 1992년보다 1994년이 높은 것은 1992년에 비하여 1994년에 배출업소수 보다 위반업소수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 ㄴ. 단속률은 1991년에 5.0으로 가장 높다. 이는 평균적으로 한 폐수배출업소가 1년동안 5번의 감시, 단속을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 ㄷ. 1995년에 부적합률이 5.5%라는 것은 총배출업소의 5.5%가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의미한다.
- ㄹ. 1994년 6.2%에서 2001년 6.8%로 부적합률이 증가한 것은 1994년보다 2001년의 경우 배출업소수는 증가하고 점검업소수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 ㅁ. 순부적합률이 1991년 58.3%에서 2002년 6.8%로 감소한 것은 배출업소수는 증가한데 비하여 위반업소수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 ① ㄱ, ㄴ, ㄷ

② ㄷ,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ㅁ

⑤ ㄴ, ㄹ, ㅁ

39. 다음 <표 1>과 <표 2>는 2005년 3/4분기부터 2006년 3/4분기까지 인터넷뱅킹서비스와 모바일뱅킹서비스의 이용실적을 서비스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실적

(단위: 천건,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조 회 서비스	9,305 <82.5> (7.8)	-	9,751 <82.5> (4.8)	-	10,079 <83.3> (3.4)	-	10,144 <81.9> (0.6)	-	10,464 <82.2> (3.2)	-
자 금 이 체	1,967 <17.5> (10.4)	135,331 (25.0)	2,064 <17.5> (4.9)	136,902 (1.2)	2,000 <16.7> (-2.1)	151,326 (10.5)	2,243 <18.1> (11.0)	149,624 (-1.1)	2,258 <17.7> (0.7)	157,932 (5.6)
대 출 신 청	21 <0.0> (22.9)	113 (-0.9)	18 <0.0> (-14.4)	127 (11.8)	21 <0.0> (16.7)	144 (13.4)	19 <0.0> (-9.5)	132 (-8.3)	16 <0.0> (-15.8)	138 (4.5)
합 계	11,274 <100.0> (8.2)	-	11,817 <100.0> (4.8)	-	12,101 <100.0> (2.4)	-	12,389 <100.0> (2.4)	-	12,724 <100.0> (2.7)	-

주1) < >내는 인터넷뱅킹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2) ()내는 전분기 대비 증감률

<표 2>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실적

(단위: 천건,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조 회 서비스	248 <81.0> (19.9)	-	301 <81.4> (21.5)	-	326 <82.7> (8.3)	-	353 <82.1> (8.3)	-	377 <82.3> (6.8)	-
자 금 이 체	58 <20.0> (14.5)	587 (9.2)	69 <18.6> (20.0)	679 (15.7)	68 <17.3> (-1.4)	720 (6.0)	77 <17.9> (13.2)	73 (4.6)	81 <17.7> (5.2)	789 (4.8)
합 계	306 <100.0> (18.8)	-	370 <100.0> (21.2)	-	394 <100.0> (6.5)	-	430 <100.0> (9.1)	-	458 <100.0> (6.5)	-

주1) < >내는 모바일뱅킹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2) ()내는 전분기 대비 증감률

<보 기>

- ㄱ.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건수가 전분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분기에는 전체 모바일뱅킹 이용건수가 전분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ㄴ. 2006년 3/4분기의 인터넷뱅킹서비스 중 이용건수가 전년동기대비 전체 인터넷뱅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서비스는 자금이체이다.
- ㄷ.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 조회서비스 건수는 매 분기마다 전분기에 비해 항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금이체금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ㄹ. 모바일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건수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기에 모바일뱅킹을 통한 조회서비스 건수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ㄹ

40. 다음의 <표 1>~<표 3>은 A, B, C, D, E 등 5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개인통행실태조사 결과를 가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개인통행은 통행목적에 따라 크게 출퇴근통행, 등교/학원통행, 업무통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적 범위에 따라 특정 도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통행과 두 도시간에 이루어지는 외부통행으로 구분된다. 이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출퇴근통행 조사결과
(단위 : 통행)

도착도시 출발도시	A	B	C	D	E	합 계
A	14,827	4,546	716	601	285	20,975
B	1,817	10,596	793	1,200	400	14,806
C	2,889	6,144	16,611	773	343	26,760
D	2,147	6,395	1,026	21,399	2,893	33,860
E	3,054	5,766	1,000	5,477	20,813	36,110
합 계	24,734	33,447	20,146	29,450	24,734	132,511

<표 2> 등교/학원통행 조사결과
(단위: 통행)

도착도시 출발도시	A	B	C	D	E	합 계
A	24,547	993	174	287	40	26,041
B	625	18,777	313	1,519	173	21,407
C	614	1,198	25,591	363	220	27,986
D	1,194	3,382	409	38,493	3,708	47,186
E	411	557	44	2,407	39,035	42,454
합 계	27,391	24,907	26,531	43,069	43,176	165,074

<표 3> 업무통행 조사결과
(단위: 통행)

도착도시 출발도시	A	B	C	D	E	합 계
A	2,040	1,271	0	0	0	3,311
B	1,063	3,082	407	0	61	4,613
C	349	737	3,833	0	0	4,919
D	231	382	0	3,002	250	3,865
E	212	647	0	381	2,853	4,093
합 계	3,895	6,119	4,240	3,383	3,164	20,801

- <보 기>
- ㄱ. 5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총 개인통행을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등교/학원통행, 출퇴근통행, 업무통행의 순이다.
 - ㄴ. 출퇴근통행에서 가장 많은 내부통행량을 갖는 도시는 D도시, 등교/학원통행에서 가장 많은 내부통행량을 갖는 도시는 E도시, 업무통행에서 가장 많은 내부통행량을 갖는 도시는 C도시이다.
 - ㄷ. 개인통행을 내부통행량이 많은 순으로 나열하면 등교/학원통행, 출퇴근통행, 업무통행의 순이고, 외부통행량이 많은 순으로 나열하면 출퇴근통행, 등교/학원통행, 업무통행의 순이다.
 - ㄹ. 출퇴근통행에서 가장 많은 외부통행은 D도시에서 출발하여 B도시로 도착하는 경우이고, 등교/학원통행에서 가장 많은 외부통행은 D도시에서 출발하여 E도시로 도착하는 경우이며, 업무통행에서 가장 많은 외부통행은 A도시에서 출발하여 B도시로 도착하는 경우이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